

교회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

(토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6

생명이 성장하고 봉사에서 유용해지기 위해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함이라는 요인

성경: 마 16:22-26, 갈 2:20, 고후 1:8-9, 2:15, 3:3-6, 4:5, 5:20, 엡 6:20

- I. 우리는 생명이 성장하고 봉사에서 유용해지기 위해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 A.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선천적으로 갖게 된 우리의 성질의 어떠함을 의미하며,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의 외적 표현이다. 타고난 기질은 우리의 내적인 어떠함이고, 성격은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 B. 내적인 타고난 기질과 외적인 성격은 우리 존재의 정수 곧 본질이다. 속의 자아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며, 표현된 자아는 우리의 성격이다.
 - C.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우리의 유용성을 가장 손상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에 따른 생활이다. 이것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원수이며,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유용성을 망치는 주요 요인이다.
 - D. 우리는 우리의 성질, 우리의 타고난 기질 안에 있는 ‘용이’에 주의하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이 ‘용이’를 처리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장에서 어떤 장애도 없이 빨리 자랄 것이고, 또한 주님께 더욱더 유용하게 될 것이다.
 - E.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 사용된 ‘생각’과 ‘자기’와 ‘혼생명’이라는 말에는 기질이 함축되어 있다. 기질은 이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다. 실지로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우리의 자아라고 말할 수 있다.
 - F.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 혼생명(마 16:22-26), 옛사람(롬 6:6), ‘나’(갈 2:20)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유용할지 혹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지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얼마나 죽음을 당했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온종일 그러한 깨달음과 실재 아래 머무는 것이다(갈 2:20, 5:24-25, 롬 6:6, 8:13하).
 - G.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우리의 자아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 자신이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자아를 거절하고, 또한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또 다른 생명,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 창 2:9, 빌 1:21상, 계 2:7, 뱀전 2:24, 딤후전 4:7-8.
- II. 우리는 주님의 일에서 우리의 타고난 기질에 의해 제한받아서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 곧 우리의 기질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주님의 봉사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 롬 1:9, 7:6, 고후 3:3-6, 4:5.
- A. 어떤 형제들의 타고난 기질은 그들의 강한 자기 확신을 반영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아를 부인하고 또한 부활하게 하시는 삼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들의 자기 확신을 반드시 뒤집어 놓아야 한다 — 고후 1:8-9.

- B. 사람이 하나님의 빛 비춤을 받은 것이 적을수록, 자신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더욱더 생각하게 된다. 사람이 더 성급히 큰 소리로 주장할수록, 이것은 그가 어떤 대가도 지불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증명해 준다. 말로는 하나님과 친근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른다 — 마 6:1-6, 16-18, 눅 18:9-14, 빌 3:3.
- C. 어떤 형제들은 환경이 완전하지 않거나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면 일하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타고난 기질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일할 수 있기 전에 먼저 특정한 환경을 요구하는 그러한 타고난 기질을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 벰전 4:1, 고전 9:23-27.
- D. 우리는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고, 어떤 대우도 견딜 수 있으며, 어떤 환경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으며, 어떤 기회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 고후 6:1-2, 빌 4:5-9, 11-13.
- E. 타고난 기질의 한 가지 유형은 ‘영웅’이 되려는 기질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인상적이고 온전하며 완전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타고난 기질의 또 다른 유형은 ‘비영웅’이 되려는 기질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어떤 일도 철저하거나 완전한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 F. 어떤 책임 형제들의 타고난 기질 안에는 다른 이들과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을 저해하는 어떤 강한 요소가 있다. 이러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역량이 있지만, 또한 교회생활에서 쉽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의 기질은 심지어 주도하려는 태도와 억압하려는 영과 비판적인 말과 율법적이고 용서하지 않는 영을 가진 기질일 수 있다.
- G. 또 다른 책임 형제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기를 원하고 누구도 마음 상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타고난 기질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주님의 일에서 그들의 유용성을 제한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정직하고 솔직한 충고의 말을 하거나 경고의 말을 하기 원하실 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비교 골 1:27-29, 살전 5:12-13, 고전 10:5-13, 히 3:7-19, 12:25.
1. 더 나아가, 그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한 천연적인 애정이라는 ‘다른 불’을 표현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과 일을 돌아볼 때 합당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합당한 감독을 하지 못하는 정도에까지 이를 수 있다 — 레 2:11, 10:1-2, 민 6:6-7, 빌 1:9, 벰전 2:25, 5:2, 히 13:17.
 2. 나실인의 서원에서 중요한 한 부분은 천연적인 애정을 통해 오는 죽음에서 자신을 분별하는 것이다(민 6:6-7). 또한 소제물에 풀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천연적인 애정이나 천연적인 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레 2:11, 마 12:46-50, 막 10:18).
- H.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반역의 근원은 그것에 연루된 사람들의 타고난 기질이었다. (사탄에게서 온) 지위에 대한 야심은 모든 타락한 사람의 타고난 기질의 주요 요소이다. 의견을 달리하는 것의 뿌리는 자아, 곧 타고난 기질이다 — 사 14:12-13, 민 12:1-2, 16:1-3, 삼삼 15:10-12, 마 18:1-4, 20:20-28, 눅 22:25-27, 고후 10:4-5.
- I.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그를 영접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엘리사는 한 번도 메시지를 전하거나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그가 식사하는 방식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다. 엘리사는 바로 이러한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 하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 비교 고후 2:15, 5:20, 엡 6:20.

- J. 주님께서 우리의 걸사람과 함께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파쇄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때 더 이상 우리의 강한 자아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사람들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의 문제들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 요 7:37-38, 눅 18:24-27, 19:2.

III. 그 영은 복합되신 영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이는 요소에 의해, 그 영의 징계에 의해,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빛 비춤에 의해, 교회생활과 열매 맺음과 어린양을 먹임에 의해 우리의 걸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신다.

- A.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이는 능력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과 그분의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을 포함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보고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죽일 수 있다 — 출 30:23-25, 빌 1:19, 롬 8:13.

1. 복합되신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살어나게 하며, 우리 안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는 우리의 약이다. 그분을 우리의 약으로 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죽게 한 것’ 곧 ‘예수님을 죽인 것’을 누릴 것이다 — 고후 4:10-11.
2. 그 영 안에는 십자가의 죽이는 요소가 있다. 우리가 아침에 우리 자신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면, 온종일 우리는 어떤 죽이는 과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 B. 성령의 징계의 목표는 우리를 파쇄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길을 얻으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에 두셔야 한다. 우리가 통과하도록 주어진 시련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표현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익을 주려는 것이다 — 고후 1:8-9, 12:9-10, 사 40:28-31, 호 6:1-3.

1. 걸사람의 파쇄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의 파쇄이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해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일이 맡겨질 수 없다. 우리의 타고난 모습과 맛을 포함하는 본래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으며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다 — 렘 48:11.
2. 출생에 의한 우리의 모든 어떠함은 좋은 나쁜든, 유용하든 유용하지 않든 천연적인 것이며, 우리의 존재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조성해 넣으시는 성령께 전적으로 방해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성격과 새로운 습관들과 새로운 미덕들과 새로운 속성들을 형성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고난 힘, 타고난 지혜, 타고난 총명함, 타고난 기질, 타고난 결점들, 타고난 미덕들에 더해 우리의 성격과 습관들이 모두 허물어져야만 한다.
3. 재조성하는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빛 비추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인도하시고,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적시신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환경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과 일과 사물 등 세세한 모든 것들을 안배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모든 방면을 허물어뜨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 롬 8:28-29.

4. 우리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배열하시는데, 그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두드러지고 무디고 단단한 부분들을 파쇄하는 것이다 — 시 39:9, 마 10:29-30, 눅 12:6.
 5.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속사람은 해방되지 않을 것이다. 질그릇이 깨져야만 그 후에 보배가 해방될 수 있다(고후 4:7). 향유가 옥합 안에 있는 한, 향기는 해방되지 않을 것이다(요 12:3).
 6.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복종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신의 복종하는 생명으로 체험한 이들만이 자신의 타고난 기질이 반역적이라는 것을 안다 — 빌 2:5-8.
 7.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무언가라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고,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다 — 빌 3:3, 고전 6:7, 갈 5:25-26, 6:3.
 8. 다른 사람들에게서 억눌리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경시를 받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낯것이고, 야생의 것이며, 쓸모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할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이 내일은 우리를 조롱하고 발로 밟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이가 가야 하는 길이다 — 요 2:23-25, 행 14:11-13, 18-21, 막 11:8-10, 비교 막 15:9-15.
- C. 우리의 타고난 기질에서 구출되는 것은 또한 큰 빛이신 그리스도의 내적인 비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비춤이 곧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 잠 4:18, 20:27, 시 18:28-29, 마 4:16, 눅 11:34-36, 행 9:3-5, 22:6-10, 26:13-19, 엡 5:13, 빌 2:15-16.
1.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신성한 빛의 비춤에서 오는 죽임이다. 이러한 비춤이 구원이며, 이러한 봄이 구출이다. 영광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이상을 참으로 본 사람은 모두 자신의 부정함에 관하여 양심 안에서 빛 비춤을 받는다 — 사 6:1-8.
 2. 주님은 우리를 폭로하시고 낮추시기 위해 우리에게 많은 빛을 주신다. 오직 이러한 빛 비춤만이 우리의 교만을 제할 것이며, 오직 이러한 빛만이 우리의 육체에 속한 활동들을 멈추게 할 것이고 우리의 겉껍질과 함께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파쇄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혐오하고 더욱 부인하게 된다 — 욥 42:5-6, 마 16:24, 눅 9:23, 14:26.
 3. 우리는 우리 자아 곧 우리의 타고난 기질에 속한 노력으로 너그럽거나 관대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엎드러지고, 그분의 파쇄를 받아들이며, 환경이 우리를 파쇄하고 허물어뜨리도록 허락하기를 배워야 한다.
- D.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주님의 손에 유용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 때문이다. 교회생활과 열매 맺는 것과 어린양을 먹이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죽이는 세 가지 항목이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여 은혜이신 하나님을 주입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사람들을 접촉하여 그들에게 은혜이신 하나님을 주입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 요 21:15-17, 엡 3:2, 4:29, 벧전 4:10.

IV.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신 것은 성령께서 신약의 믿는 이들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시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 안에서 변화의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다. 성령께서 그

들의 기질을 처리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형상을 이루고 충분히 자라 성숙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어, 그들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공급받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롬 12:2, 고후 3:18, 히 6:1상, 창 12:1-3, 겔 34:26, 민 6:22-27.

- A. 야곱의 삶은 타고난 사람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파쇄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 허무시는 것은 우리의 쓸모없는 자아, 곧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은 비할 데 없고 탁월하며 무한한 분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 고전 3:12.
- B. 하나님은 야곱이 일생 분투하는 삶을 살도록 정하셨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주권적으로 안배하셨고, 그 모든 것이 야곱의 선을 위해 협력하게 하셨다. 그 결과 그분은 빼앗는 사람이자 발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인 야곱을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실 수 있었다 — 창 25:26, 32:24-32.
- C. 야곱이 생명의 성숙(변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축복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빼앗는 손은 축복하는 손이 되었다. 축복하는 것은 생명의 성숙을 통하여 생명이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넘쳐흐르게 하는 것이다 — 창 47:7, 10, 48:14-16, 49:1-28.